

故事와 불

(연재 제21회)

항주(杭州)의 자위소방대

하늘에는 天堂, 땅에는 杭州.

중국 대륙의 중남부 浙江省의 省都 항주는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가장 여성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중국 10대 명승지로 꼽히는 西湖가 있고, 越나라 최고의 미인 西施의 흔이 살아있으며, 역사 속에서 많은 文人墨客 들이 思想한 곳이 바로 항주이다. 특히, 이곳은 그의 사상이 흔히 불(火)로 비유되는 東坡 蘇軾이, 관리로서 혹은 자연인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즐겨 시를 읊었던 곳이기도 하다.

서호의 경치는 천하에 으뜸이라/ 현자 혹은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찾아오네
각기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상하나/ 항주의 전부를 아는 이 그 누구랴
아! 내 본래 지나치게 고지식하여/ 일찌기 세상과 가깝지 않았으나
나 홀로 산수를 즐기니/ 이 모두 하늘의 뜻이 아닌가?
..... (소동파의 詩, 中略)

갈대숲 사이에서 혹 늙은 어부를 만나거든/ 그들과 한담을 나누게
혹 그들에게서 지혜로운 대답을 들었거든/ 가격을 따지지 말고 그들의 고기를 사게나.

문명과 파괴, 은혜와 재앙.... 이렇듯 불(火)이란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가진 신”이라고 믿었던 고대사회에서부터 방화관리 조직이 있었다.

B.C 300년경 고대 로마에서는 민간단체인 The Familia Publica라는 일종의 자위소방대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이 야간의 방화순찰과 화재시 진압활동을 담당하였다.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방활동이 있었는데, 기록에 나타난 중국 최초의 소방조직은 13세기 경 杭州의 自衛消防隊이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The Great Oriental Civilization”에 따르면 당시 항주에는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조직이 있었고, 이들을 消防隊(Firemen) 또는 火災監視隊(Watchmen)라고 불렀다.

이 소방대의 당시 대원은 무려 1,000~2,000명 정도로서, 주로 경계활동과 화재진압활동을 하였으며, 한 지역에 10명 단위로 순찰대를 편성하여 5명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현대문명이라는 잣대에 의해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근대에서 초현대까지 걸쳐있는 중국, 고대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있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중국, 눈만 크게뜨면 자연스레 세상 제일의 것이 지천인 중국.

이 나라에서 자랑하는 천하의 絶景 항주를 어렵사리 찾았을때, 의당 700여년 전 한나라 수도의 소방을 담당했을 그 시절의 자위소방대 흔적을 찾아보고자 욕심을 내어보았으나 한마디로 난감한 일이었다. “인생에서 뜻대로 안되는 일이 열에 여덟 아홉이야”하는 그 지방의 속담이 귓전을 스칠 뿐... (FLX)

〈金東一 / 위험진단부 차장〉